

보도 일시	2026. 8. 4.(화) 08:00 <8. 4.(화) 석간>	배포일	2026. 8. 3.(월)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박준용 팀장(043-880-5821) 이나래 대리(043-880-5825)

[소비자안전주의보]

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사고 주의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앰플이나 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관련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4개 제품 판매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용기 교체를 권고했다.

□ 최근 5년간 인공눈물 오인 점안 사고 총 21건 발생

최근 5년간('21. 1.~'26. 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으로, 이 중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19.0%(4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올해 2월에도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하고 점안해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화장품은 투명 플라스틱 형태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매우 비슷한 구조였다.

< 화장품과 일회용 인공눈물 비교 사진 >

인공눈물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품 사진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 사진
	

□ 인공눈물 오인 우려 화장품 4개 제품, 생산 중단 및 용기 개선 조치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4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4개 제품)에서 판매하는 세럼 및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제품 포장재나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했으나,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4개 업체에 제품 개선 등을 권고하였고,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화장품 안구 점안 시 심각한 안구 손상 발생 우려

세럼, 앰플 등의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성분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의 손상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은 원인 물질의 산도(pH)와 농도, 접촉 시간, 세척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전 용기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어두운 곳에서의 사용을 자제할 것,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즉시 씻어내고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신고]

- (홈페이지) www.ciss.go.kr에서 '위해정보 신고하기' 클릭
- (핫라인) 국번없이 080-900-3500



위해정보 신고

- 붙임 1. '인공눈물 오인 사례 관련 위해정보' 분석
2. '인공눈물 오인 화장품' 관련 조사 결과
3. 조사대상 제품 정보
4. 소비자 주의사항



1 위해정보 분석 결과

- (전체) 최근 5년간('21. 1.~'26. 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한 사례'는 총 21건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인공눈물 오인 사례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5월)	계
건수	5	4	5	1	4	2	21

- (품목별) '화장품'과 '무좀약'이 19.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해거담제' 9.5%(2건) 등의 순이었음.

<최근 5년간 품목별 인공눈물 오인 사례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품목	건수	비율
화장품(세럼, 인체세정용 등)	4	19.0
무좀약	4	19.0
진해거담제	2	9.5
기타*	11	52.5
계	21	100.0

* 차량용 방향제, 알코올 세척용액, 순간접착제, 비타민 농축액, 렌즈 세척액 등

- (증상별) 이물감·따가움·화끈거림 등 안구 통증 증상이 76.2%(16건), 시력저하 등 안구 손상이 1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증상별 인공눈물 오인 사례 위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건, %)

증상	건수	비율
이물감, 따가움, 화끈거림 등 안구 통증	16	76.2
시력저하 등 안구 손상	3	14.3
기타	2	9.5
계	21	100.0

1 조사 개요

- ☐ (목적) 인공눈물 형태로 포장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대상 용기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 ☐ (조사대상)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인공눈물과 흡사한 용기의 세럼, 앰플 등
 - *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 ☐ (조사내용 및 방법)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주의사항 문구 표시 점검
- ☐ (조사 기간) 2026. 3. 30. ~ 5. 28.

2 조사 결과

가. 제품 용기 형태

- ☐ 총 4개 제품(붙임3 참조)이 인공눈물과 흡사한 용기를 사용하여 오인 우려가 있었음.

나. 주의사항 표시

- ☐ 4개 제품 모두 제품 포장 및 판매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입니다’, ‘눈에 사용하지 마시오’ 와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음.

3 사업자 시정권고

가. 권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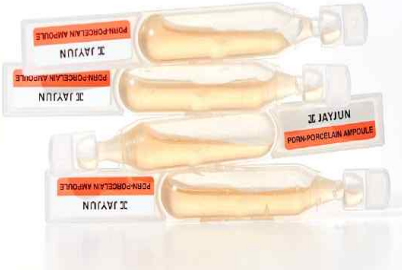
- ☐ 4개 사업자 대상 인공눈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용기, 포장을 변경하는 등의 품질개선 또는 판매중단을 권고함.

나. 사업자 회신

- ☐ 1개 사업자(차에이아이헬스케어(주))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하였고, 3개 사업자(주)아이더블유컴퍼니, 주식회사 에이피알, 주식회사 더파운더즈)는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밝힘.

붙임 3

조사대상 제품 정보

연번	제품명	참고사진	브랜드	사업자명
1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아누아	주식회사 더파운더즈
2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리르	(주)아이더블유 컴퍼니
3	PDRN 포슬린 앰플		제이준코스 메틱	차에이아이 헬스케어(주)
4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메디큐브	주식회사 에이피알

오인 점안사고 예방 방법

- **제품 외관 및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용기로 제작된 세럼 등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개봉 전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품목명과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하여 보관하세요.**
 - 화장품을 안약으로 오인해 점안하지 않도록, 인공눈물 등 의약품과 분리된 곳에 보관하고, 포장박스를 버리지 마세요.
-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세요.**
 - 취침 전이나 새벽 등 어두운 환경에서는 용기 모양을 착각해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불을 켜 상태에서 제품을 명확히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 **영유아고령자가 사용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세요.**
 - 글씨를 읽기 어려운 영유아나 시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즉시 생리식염수 또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세요.**
 -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을 이용해 눈을 충분히 씻어내세요.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즉시 렌즈를 제거하세요.**
 -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거울을 보고 중지로 아래 눈꺼풀을 내려 렌즈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후 검지로 렌즈를 아래로 천천히 이동시켜 각막에서 벗어난 걸 확인하고 제거하세요.
- **눈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각막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 **오인한 제품을 지참해 안과에 방문하세요.**
 - 눈을 씻어낸 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안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때 눈에 잘못 넣은 제품을 지참하면 정확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